

본회-건국대학교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



▲ 강창원 건국대 닭고기수출사업단장(좌)과 이준동 양계협회장(우)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

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(회장 이준동)와 건국대학교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(단장 강창원)은 연구협력,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가금제품의 해외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.

앞으로 양 기관은 연구개발 및 지도자육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금제품의 해외 수출 증진을 도모할 것이고 가금제품 등 수출증진을 위한 공동연구, 수출국 위생관련 정보공유 및 관련업체 제공과 워크샵, 심포지엄

등을 협력할 계획이다.

이날 강창원 단장은 “닭고기 산업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이 꼭 필요하다. 현재 8백만 달러의 수출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2년 이내에 5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이준동 회장은 “우리나라가 가격경쟁으로 타국을 앞지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. 품질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.”라고 언급했다. 양계